

텐진 신앙

스가와라 미치자네(845-904)는 다자이후에 좌천된 후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미치자네는 사후 학문, 문화, 예술의 신인 ‘텐진’으로 신격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두루마리 그림, 회화, 조각을 통해 미치자네에 대해서 배운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텐진으로서의 미치자네는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작품에 따라서는 학자의 위치에 있었던 미치자네의 실제 모습을 가깝게 표현한 것에서부터, 미치자네의 사후 수년간 교토에서 발생했던 천재지변이나 역병이 그의 원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는 미치자네를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당시 유행했던 양식에 맞춰 각색되었으며, 선(禪)이 널리 퍼지면서 미치자네에 대한 이미지도 그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두건과 의상을 입고 꽃을 피운 매화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미치자네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텐진을 모시기 위해 조성된 신사의 신자들은 수 세기에 걸쳐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다자이후 텐만구는 일본에서 12,000 개가 넘는 텐진 신사의 총본사로 자리 잡았습니다.